

'회장직 놓고 내분' 광주시상인연합회 재정비 분주

회장 자격을 놓고 내분에 휩싸였던 광주시상인연합회가 최근 새 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이사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재정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해당 회장 자격이 양동복개상가상인회장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내용이 반복될 여지도 남아있다.

3일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광주시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상인연합회는 지난 2006년 발족돼 양동시장, 월곡시장, 말바우시장 등 2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회원으로 둔 광주시상인연합회로 전 회장 A씨는 2018년 5대 광주시상인연합회장직에 선출돼 2021년 재선에 성공, 6대 상인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양동복개상가상인회장을 맡았으나 2017년 10월 임기(3년)가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 회장 선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가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에 A씨는 광주시상인연합회 정관 10조 '임원은 상인회장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양동복개상가상인회장 타이틀을 앞세워 광주시상인연합회장직에 출마, 재선까지 꾀했다.

때문에 지난해 양동복개상가상인회에서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정기총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회장 퇴진을 요구했으나 A씨 측은 "코로나

나 방역조치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진 모르지만, 총회를 진행했다"며 맞섰다.

이후 해당 상인들은 같은 해 5월 양동복개상가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A씨의 회장직 박탈 및 새 회장 선출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 최근 '임시의장 선임의 건', '회장 선출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문을 받았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양동복개상가상인회 임시의장, 상인회장, 이사 선출을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새 회장을 선출했고 서구청에 새 회장 명의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상인회 등록증)를 접수한 상태다.

반면 A씨 측은 "이번 선거는 정족수가 미달되고 투표 참여 회원들의 자격도 불분명하다"며 지난 1일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양동복개상가상인회장

자격 유무가 광주시상인연합회장직 자격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광주시상인연합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분이 일어났다.

광주시상인연합회 정관 제9조와 10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해당 상인회장직을 상실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와 '임원은 상인회장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놓고 '전임 회장은 상인회장으로 볼 수 없다'와 '전임 회장 직무 수행도 엄연한 상인회장'이라는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3월19일 긴급이사회를 기점으로 총 29개 상인회 및 상점가 중 13곳이 참여하는 광주시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내분이 격화됐으며 5월27일을 마지막으로 1회 개최해야 하는 정기이사회 등도 중단됐다.

광주시상인연합회는 오는 5일 긴급임시의사회를 개최해 최근 광주지역 최대 이슈인 복합쇼핑몰 유치 등 관련 당면 과제 논의와 함께 임시의장 및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날짜를 결정하는 등 그간 이어졌던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광주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상인연합회가 내분과 때 복합쇼핑몰에 대해 경계는 물론 소통창구조차 없어 논의한 번을 제대로 못했다"며 "분열된 상인연합회가 유명무실한 단체로 남지 않고 하루빨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마트휴업일 폐지" 반대 전통시장 상인 집단행동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연합회는 전남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시점에서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에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지역인재 104명에 장학금 1억여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송중옥 은행장과 김영균 (재)광주은행장학회 이사장, 광주·전남 출신 고교·대학 재학 장학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올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인재 104명을 선발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총 1억3천만원이다. <광주은행 제공>

SKT, T팩토리 상무점서 '덕콘' 개최

7일 싱어송라이터 'PL' 초청...6일까지 선착순 접수

SK텔레콤 유통자회사 ㈜피에스앤마켓은 오는 7일 오후 3시에 SK텔레콤 PS&M 상무점(T팩토리)에서 무료 콘서트 '덕콘(THECON)'을 진행한다. SK텔레콤 플레그십 스토어 T팩토리에서 흥대 공연 문화 활성화와 일상의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 시작한 소규모 무료 콘서트다. 피에스앤마켓은 지역 사회와의 동행에 '덕콘'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앞서 광주에선 지난 3월 SK텔레콤 광주일곡점에서 록밴드 '안녕바다'를 초청해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콘서트는 히트곡 '말리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PL(피엘)'을 초청해 진행되며 공연 예약은 네이버 SK텔레콤 PS&M 상무점 홈페이지에서 6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허선영 피에스앤마켓팅팅 대표는 "통신매장의 공간을 활용해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객의 마음을 사는 NEW ICT 유통 리더'를 슬로건으로 지난 2009년 4월 설립된 SK텔레콤 유통자회사 피에스앤마켓은 이동통신 및 유무선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 벤처기업 '미세플라스틱 無' 알콜티슈 출시

첨단지구 벤처단지 소재 (주)필코스메틱코리아 하수관 막는 물티슈와 달리 6개월내 완전 분해



광주지역 한 벤처기업이 미세플라스틱 없는 알코올 티슈를 출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 첨단지구 벤처단지 소재 (주)필코스메틱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엠메이데이 알티슈' 브랜드로 미세플라스틱 대신 천연 목재 펄프를 재생시켜 만든 레이온 원단을 이용한 알코올 티슈(사진)를 선보였다.

시중 상당수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돼 물에 녹지 않아 하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 제품은 사용 후 6개월이면 자연

에서 완전 분해된다.

비싸지만 친환경적이며 기름 때까지 녹여 세균이나 얼룩을 빠르고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고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등에 다양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밀, 옥수수, 보리 등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곡물탄소가 함유돼 마르고 나면 잔여물이 없고 거품이 남지 않으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기름 때를 녹이는 세정제의 주성분이자 보존제 역할도 한다.

정제수는 두 번의 정제과정을 거친 6단 정제수를 사용하고 인공향료가 아닌 천연향료를 사용한다. 화학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피톤치드 탈취효과와 편백 속삭향을 뽑은 편백오일과 레몬껍질오일 성분만으로 만들어 기본 좋게 사용할 수 있다.

임형수 필코스메틱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일상에

서 날마다 사용하는 것, 엠메이데이는 가족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당신의 피부를 생각하며 만든 고품격 제품"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은 물론 화학보존제도 일절 첨가하지 않아 건강은 물론 관공서 ESG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 물티슈 1팩에는 플라스틱 150g을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이 일년에 평균 12팩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1천800g이나 된다. 광주시 인구 143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2천574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게 되며 이는 20ℓ 재활용병투 25만7천400개 분량이나 된다. /양시원기자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서

광주경총은 이달부터 금요조찬포럼을 기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 상무지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대연회장으로 장소를 변경,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요조찬포럼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개최된다. 참석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광주경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8월 금요조찬포럼 연사와 강연주제는 ▲5월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정약용의 경제와 목민 개혁사상' ▲12월 박수중(리엔경제연구소 대표) '금번하는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방향' ▲19일 김석동(전 금융위원장)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 ▲26일 이순재(연기자·SY연기아카데미 원장) '아직도 난 연기하고 있다' 등이다. /기수희기자

남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온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벌고,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와 팔던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